

신종 코로나 장기화 조짐...한국 경제 기저가 커나 했는데

수출, 관광, 소비 등에 악영향...전문가 “대·중소기업 모두 피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4월 말~5월 초에 절정 다다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초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중국 내수 부진에 따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줄어들 경우 국내 관광 및 소비 분야에 적잖은 피해도 우려된다.

내부적으로는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신종코로나 포비아’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과거 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연초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해외의 주요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홍콩대 전염병역학통제센터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4월말~5월초 절정에 다다른 후 통제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사스보다 강하고 증절 직전 500만명이 베이징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중국내 감염자 및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상황을 장기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 분석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우리 수출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만이나 한국과 같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1월 우리나라 수출은 433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1% 감소했다. 발병 초기라 바이러스에 따른 수출감소보다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2018년엔 2월에 설

연휴)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수출은 플러스가 전망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대중(對中)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사태와 달리 중국 경제의 비중이 4배나 커졌고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은 6049억달러이며, 중국 전체 진출기업은 3751개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는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에서 소비지출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2003년 사스 당시보다 커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내에서 이동제한이 강화되면 공장조업이 중단되고 그럼 우리가 중국 수출에서 70~80%가 중간재인데 그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모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번 사태가 중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가 상당히 안좋은 상황에서 이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게 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스 당시 대내외의 여건이 우호적이었던 것과 비교해 현재 중국경제는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하방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관광 및 소비도 비상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국내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면세점 매출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스 사태 이후 줄었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6번출구 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선별 상담소가 출입통제되고 있다. 중국보건소가 설치한 이 상담소는 31일부터 운영된다.

던 유커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국내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불안심리로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 과거 메르스 사태 때처럼 소비침체로 국내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면세점 매출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스 사태 이후 줄었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관광·소비분야에선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에도 구정연휴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외출을 자제하는 걸 알 수 있다. 국내 소비시장 측면에서 보면 아마 내수 쪽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중국인) 입국 규제를

쿠팡 이어마켓컬리도 주문 ‘폭주’...코로나 포비아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출을 꺼리면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주문량 폭주로 쿠팡의 새벽 배송이 지연됐고, 마켓컬리의 냉장 상품 주문은 조기 마감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일 ‘로켓프레시’의 새벽 배송이 오는 2일까지 최대 2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쿠팡이 그동안 배송 인력을 지속해서 확대한 것을 고려하면 로켓프레시의 배송 지연은 이례적이다.

같은 날 마켓컬리는 아예 냉장 상품 주문을 조기 마감했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냉장 상품 주문량이 센터 처리량을 초과했기 때문

이다. 쿠팡과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지연, 상품 조기 마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크다. 감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안해진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 대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동했다.

특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장을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 실제 지난 28일 쿠팡의 로켓배송 출고량은 330만건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월 일일 출고량이 170만건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앞서 직원들에게 보낸 레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 상황”이라며 “연휴 직후의 수요 증가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마스크 등 급하게 필요한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를 확보하고 물류센터와 배송망을 정상 운영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앞서 메르스(중증호흡기중후군)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5년에도 쿠팡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자

세한 수치는 확인해야 하지만, 최근 주문이 늘어난 것은 맞다”며 “메르스 때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백화점이나 마트의 대안으로 이커머스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새벽 배송 주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옷이나 신발, 가전 등은 구매를 미룰 수 있지만 식사는 매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가는 대신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만 하는데 누가 사람 많은 곳을 보고 싶겠냐”며 “새벽배송 주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힘든 대형마트에는 악재”라고 덧붙였다.

뉴스1



화장품 매장에서도 마스크 팔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기간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매장 입구에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다.

금융 핵심정보 ‘한눈에’...저축성보험 수익률도 공시

금융소비자가 저축성보험, 예·적금 등 상품 가입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 저축성보험 수

익률, 예·적금 상품의 전월취급 평균금리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이 추가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금

융협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금융상품을 비교해 보여주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또 각 금융협회는 저축성보험, 예·적금 등 5개 주요 금융상품군의 핵심정보를 쉽게 비교하도록 요약공시 화면을 신설하고, 맞춤형 검색기능도 추가한다.

은행연합회, 생보협회는 2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손보협회는 올해 상반기 내 새로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뉴스1

창립 60주년 금호타이어, 3년 만에 흑자전환 기대감

2일 금호타이어와 증권가에 따르면 2019년도 실적은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6169억원, 영업이익 239억원으로 분기실적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어 3분기에도 매출 5900억, 영업이익 158억을 기록하며 2019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7567억원, 영업이익 250억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금호타이어가 4분기 들어서도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면서 2016년 이후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정확한 2019년도 실적통계는 2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라며 “소폭 흑자를 예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송정역과 인접한 공장부지를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내놨고 현재 이전부지를 물색 중이다.

뉴스1



유통업계, 펭수 덕에 웃는다...패키지 집중

펭수 덕후' 소득 있는 2030 세대 '구매력 높아'

식품 업계가 ‘직장인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펭수 효과에 합박웃음을 짓고 있다. 2030 세대 사이에 폭발적 반응을 끌어내며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서다. 특히 업체들은 다양한 상품을 묶은 ‘패키지’ 판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펭수 팬은 10대와 달리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 KGC 정관장 유튜브 동영상 2000만 '초대박'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삼공사(KGC)의 정관장 펭수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 수 2000만건을 넘어섰다.

펭수는 EBS 연습생 신분으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에서 활약하는 캐릭터다. 각종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하며 거침없는 언변으로 직장인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인삼공사(KGC)가 올린 영상은 펭수가 이벤트 참여해 항공권을 얻어 고향인 남극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4분 남짓 분량이다. KGC 계정에 올라온 140개 영상 중 조회수는 단연 가장 높다.

KGC는 명절 기간 정관장을 알리고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 펭수를 모델로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다른 브랜드 모델과 달리 명절 특수를 노린 약 3개월 정도다. 증가하는 명절 선물 세트 수요를 잡기 위해 펭수를 모델로 내세운 셈이다.

세해에도 펭수의 인기는 상한가다. 빙그레는 제과형 아이스크림 봉어싸콘·빵또아의 모델로 펭수와 계약을 체결했다. 코카콜라 과즙음료 마네페이드도 새해를 맞아 펭수를 모델로 선정했다. 마네페이드 코코구미 파인애플 광고 모델 활동을 시작으로 브랜드 모

델로 활약한다. 빙그레는 2018년 슈퍼콘 출시 이후 지난해 영국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발탁했다. 아이스크림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 공략을 목적으로 인지도 높은 모델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엔 펭수가 모델로 나서는 제품은 제과형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은 상품 특성상 겨울은 비수기다. 다만 제과형은 상대적으로 겨울에 더 잘 팔린다. 빙그레 역시 단기 계약을 맺은 펭수를 앞세워 비수기 매출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 ‘패키지’ 판매로 매출 극대화 전략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펭수 캐릭터로 제작한 상품을 묶어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펭수 덕후’를 공략해 판매량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동원F&B는 남극 펭귄 잡치 한정판을 내놨다. 남극 펭귄 잡치는 ‘남극 잡치’ 5개와 펭수 캐릭터가 그려진 ‘펭수 잡치’ 1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패키지를 다양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빙그레도 펭수 모습이 그려진 스페셜 패키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펭수 팬들 사이에선 한정판 사재기 문화가 있다”며 “펭수 팬 대부분은 소비력이 있어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펭수 몸값도 치솟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구체적인 금액 공개는 어렵지만, 유명 연예인과 엇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새마을금회중앙회 금융감독원 동행복합

제 894회차 당첨결과 (2020년 2월 1일 추첨)

5 12 25 26 38 45 + 23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3,053,222,036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46	77,436,79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586	1,377,45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28,068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2,066,172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일임)